

#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인프라 집적된 광주에 유치

## 광주 국회의원의 공동회견…플렉트 공장도 설립

### AI사업 ‘첫 걸음’ 13개 분야 1597억 국비 확보

지난달 경주 APEC에서 회원국들이 뜻을 모은 ‘AI 이니셔티브’ 실행기구인 ‘아시아태평양 AI센터’를 광주에 유치한다. AI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인 공조기기 생산업체 플렉트그룹이 조만간 광주에 공장을 설립할 전망이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태 AI센터가 광주에 설립되면 광주가 국제적

인 AI도시로 부상하게 돼 ‘광주 AI 중심도시’ 조성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는 역대 모든 회원 경제의 AI 전환 참여와 AI 채택 향유를 위한 비전과 실행 방안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를 정상 합의문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국내에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해 아태지역 AI 격차 완화와 AI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시 APEC 회의를 방문한 젠스 환 안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광산구을)은 이날 회견 이후 브리핑에서 광주 의원들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유럽 최대 공조기기 생산업체인 플렉트그룹의 광주공장 설립 계획이 구체

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들었다”며 “실현되면 AI사업에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15억 유로를 투자해 독일 플렉트그룹(FlaktGroup)을 인수했다. 플렉트는 1918년 설립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글로벌 톱 티어 공조 업체다. 민 의원은 “플렉트그룹의 투자는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공조기기 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AI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광주 AI 중심도시 구축의 ‘첫걸음’이 될 총 13개 분

야 1597억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 실증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안했던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확장 △국가 AGI 연구소 설립 △광주 모빌리티도 시 지정 제안이 모두 반영됐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는 무산됐지만,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끈질기게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대국민 기자회견과 함께 광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AI예산은 과방위 조인철 의

원(서구갑)과 산업위 정진욱 의원(동구남구갑)이 기본 열개를 세워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도걸 의원(동구남구을)과 정진욱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를 중액 반영했다. 다른 광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인맥과 역량을 총동원해 관계 요로의 부처와 기관을 설득하며 ‘원 팀’으로 힘을 보탰다. 광주 의원들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인 국가 AGI연구소 유치는 물론 광주 AI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입법·예산·정책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회 본관 2층 정문 글세김 제막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현관 글세김 제막식에 참석해 제막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남

## 광주시민 숙원 ‘서구 마북동 탄약고 이전’ 가속도

### 양부남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정부예산 50억원 확보 설계재검토 용역 후 공사 착공…“조속 이전에 최선”

광주시민의 숙원인 ‘서구 마북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됐다. 광주시는 탄약고가 이전되면 공원과 국제문화·MICE 기능을 결합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마북동 탄약고 이전사업 예산 35억원이 중액, 총 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북동 탄약고는 지난 50년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거주자와 인

근 주민들의 재산권·생활권 침해와 안전 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지난 2005년 국방부의 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보상비와 공사비 등 2681억원이 투입되며 이전이 추진됐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2년 넘게 멈춰선 탄약고 이전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로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전사업 재개 배경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양부남 의원과 광주시의 전방위적인 대정부 설득전이 주효했다. 먼저 양부남 의원은 지역구인 서구



는 물론 광주의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탄약고 이전을 위해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광주군공항 이전을 직접 건의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업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국방부, 기재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한 끝에 이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 국방위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예산안 미반영분 중 35억을 추가 편성, 총 50억원

의 이전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강기정 시장도 지난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고, 구윤환 경제부총리·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2026년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박균택 국회의원 등도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양부남 의원은 “중단됐던 이전 사업이 예산확보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마북동 탄약고 이전은 내년 설계재검토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미반영 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해 탄약고 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김영록 지사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4조6000억규모 석화·철강 메가프로젝트 추진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장과 함께 4조6000억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에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안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지원, 재교육, 고용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킬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꿈과 헌신으로 성장해 온 분야다”며 “석유화학산업을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등 산업 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안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 예정이다.

##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 내년 예산안에 반영…월 15만씩 2년간 지급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곡성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조원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올해보다 7.4% (1조3946억원)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기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대상지로 추가됐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회복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해 올해 곡성군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 완료하는 등 사업 착수가 가능한 수준의 행정·재정 기반을 갖췄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 마켓 운영과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물을 활용한 소비력 증대를 통한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상태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 국립김산산업진흥원 설립 등 현안 추진 ‘날개’

▶1면서 계속 문화 인프라 강화도 이어진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6억5000만원을 확보하며 시설 유치에 청신호를 쏘았다. 돌봄·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20억원이 반영돼, 광주에서 시작한 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강화된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238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668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

철도 2호선 건설 100억원(정부안 1665억원), 마북동 탄약고 이전 35억원(정부안 15억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64억4000만원(정부안 108억6000만원) 등도 추가 확보됐다. 전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 총 10조4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9조502억원보다 9540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지난 9월 정부안 단계에서 9조4188억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85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국비 1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전남도는 특히 내년 국비에서 광역교통망 SOC 사업을 대거 확보했다. SOC 분야

예산은 올해 1조905억원에서 29.2% 증가한 1조4099억원으로 편성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는 570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국비는 1016억원이다.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개량 사업비 1722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설계비 80억원,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비 75억원도 포함됐다. 우주·에너지 산업 분야 예산도 본격확대됐다.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 개발·발사체를 시험·운용할 수 있는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이 반영됐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금

250억원과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원(총사업비 495억원)도 확보됐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전남의 주력 산업인 김 산업과 AX농업 기반 구축 예산이 포함됐다.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5억원이 배정됐으며, 무안 농업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 45억원(총사업비 400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관광 인프라도 강화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는 도내 36개 사업에 663억원이 골고루 반영됐다.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원(총사업비 401억원),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5억원(총사업비 215억원), 장성 K-사찰 음식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이 반영됐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금